



세계 박람회장을 관람하고

Mt. Sinai Hosp. 채봉순

Long weekend를 이용해서 갖춘 양반 장날 성내 구경가듯 어디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영아와 같은 날 off duty를 얻겠다고 1個月前에 request를 해두었다. 웃을 흘리며 학교다닐때 소풍전 날엔 하늘만쳐다보며 소나기 내리는 꿈을꾸듯 일기예보에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모처럼 하는 여행에 사진이나 찍자고 colour film을 전뜩 사두었는데 만일 비나 주룩 주룩 내리면 모처럼의 물든 여행기분은 잡치기 때문이다.

미리 우리대로의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될 수 있는한이군 든 적게드는 여행이 멋있다고 자위아닌 자위를 해가며 bus에 올랐다. 실은 보다 서민적이고 보티충농처럼 구수한 것은 비행기보다 bus가 좋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가 자욱 지워진 Philadelphia를 거쳐 New York의 세계박람회를 보고 오기로했다.

시원스런 Lake Michigan을 따라 달리는 bus 창에서 모처럼 정말 해방된 기분을 느낀다. 이상스럽게

도 뒤통수에 늘 따라다니는 조국 한국이란 이름과 거기에 반영된 나 자신의 모습에서 행여나 메시꺼운 눈길을 받을까봐 잠시도 떠날줄 모르던 그 긴장이 여행이란 큼지막한 미소앞에 어렌지 사라져 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기분은 수학여행떠나는 중학생처럼 들렸다.

아득히 보이는 파란물이며 양옆으로 펴진 차라리 짙은 녹음이며 파란 하늘 그 모든 자연이 주는 벽찬 감회 속에 마음은 특수티의 널개처럼 하늘을 나른다. 산다는것은 깨미있고 묘한거다. 비록 혜어 날 수 없는 비참 속에 허덕인다 하드라도 그것은 아름다운게다. 생명의 신비때문에 비참하다는 사실도 느낄수 있기 때문이 말이다. 비록 문둥이 얼굴처럼 찌그려진 것 같은 우리의 조국이지만 그 속에서 호흡하는 나 자신이 있기에 한번 더 차근히 생각해보자. 잉여 농산물과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선이 한 달에 한번씩 열굴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한 내 조국이지만 그런

조국에서 뛰쳐나갈 수 없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더 차근히 생각해보자.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락한 행복이 아니다. 그것이 절작이 되던 출장이 되면 지치지 말고 봇을 들고 두다리를 힘있게 벼티고 Canvas 앞에 서서 불감을 찍어 바르는 게다. 때로는 분홍색을 때로는 온통 검정색을.....

우리 앞에 닥아오는 수많은 시간을 정말 바른 눈으로 직시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떻든 한번밖에 올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말이다. 가장 큰 비극은 자기를 잃어 버리는 것이고 그것 보다 더 큰 비극은 그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미한 자연과 그 예술성에 보다 화사한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인 동시에 그것에서 보다 비약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자. 가도가도 끝없는 넓은 들판 진흙, 깨끗하고 고운 길, 우리에게 그 넓은 들판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도 좋아진 것일까 여행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부려울에 앞서 양립기 조차하다. 한국을 떠날 때 길포 공항에서 목메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젖어 잠시 울고 났더니 어느새 비행기가 날해 위에 떠 있던 것을 생각하며 여기는 참 한없이 넓은 곳이다. 하지만 그런 조그만 어슬픈 나라에서 와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나가는 그 발버둥을 귀엽다고 해 두자. 비록 산골 어느 두레 호미

자루에 손바닥이 땊은 가난한 농부의 자손이지만 여기 함께 호흡을 할 땐 가슴이 뿌듯함을 느낀다.

나도 무언가의 보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비록 쫓기고 빛는 피로한 신경의 생활이지만 그 생활에서 그들보다 틀리는 우리의 낭만을 없 있게 보자. 화사하고 편안한 여행은 아니지만 그런 여행이라도 여행답게 즐기고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세가 귀엽지 않나. 슬픈 추억, 즐거운 추억을 되색이며 Philadelphia 에 땅았을 땐 아침 6시 30분, 구내 cafeteria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끝내고 Guide map 을 사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check 한 다음 camera 만을 들고 출발. Philadelphia 의 인상은 조용한 노인의 미소 같았다. 그 많은 기적—실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그 많은 윤택을 낳게 한——땅이니까. Art museum 이니 Public library에는 귀한 서적의 열거가 있었고 그 많은 책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부려워 해 본다.

하루밤 신세를 지기로 한 Y.W.C.A.에 와선 몇 군데 열서를 떠우고 폭자야만 또 내일의 여정을 꾸릴 수 있겠다.

Operator에게 6시 30분에 깨워 텔라고 부탁을 해놓고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 여기서 New York 까지는 Bus 로 2시간 걸리는 가까운 거리, 아침에 새로 옷을 차려입고 나니 이

제의 피로는 가신듯 역시 젊음은 좋은 것인가 보다. 단 하루동안의 정든 곳을 잘있으라고 손을 훈들며 New York으로 향한다. 멀리서 봐도 높고 뾰족한 건물들, 이를도 모를 웅장한 설비, 공장들, 세계의 심장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아튼 오늘은 세계박람회장부터 구경하기로 하였다.

Hotel를 정한 다음 30분쯤 달려 박람회장에 도착. 온세계의 풍습, 집 모양 세계의 생활양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했다. 제일 먼저 한국관을 찾았다. 고운 한복차림의 waitress들의 모습은 오랫만에 고향이나 온 것 같은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포근한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정말 무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우선 김치니 비빔밥을 먹고 낫더니 고국생각이 그 김치의 끓맛에서 더욱 느껴져 온다. 우리 한국관이 좀더 한국인의 정서가 넘쳐흘렀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물론 거기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따를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우쭐한 개구리처럼 좁은 하늘속에서 자만을 길러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 5,000년의 역사를 걸폐조탁지 대하듯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어깨를 짙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란 민족의 꾸밈새에 기록이 아

닐까. 너무 자신에 혹하지 말자.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것에 모든 것을 빌려 버리지 말고 가끔은 차근한 삼자의 입장에서 초연히 우리자신이 활짝을끼고 먼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

국제간의 이런 기회는 참 좋을 것 같다. 서로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회니까. 특히 감명깊게 본것은 Vatican Panilion의 미켈란체로의 Pieta이다. 죽은 아들을 예수를 안고 탄식하는 어머님의 서러움을 흰 대리석 위에 자유자재로 표현한 모습은 신의 조화로만 생각이 들었다. 저녁엔 몹시 피곤은 하지만 쉬이 잠들수 없었다. 한국의 구수한 대포집 생각은 남자들만의 특권인 자유일까.

이튿날 Sight seeing bus에 올라 곳곳이 구경을 하였다. 특히 대서양 한가운데 햇불을 높히들고 걸을 밟혀주는 자유의 여신상은 찰 기발하고 예술과 인생을 아는 불란서인 다운 선물이라고 새삼 감탄했다.

Empire State Building은 차라리 국민학교때 익혀 아는 이름 누가 그 옆에 가서 쪽대기를 올려다 보다가 뷔로 넘어 졌다고 하더니 고개를 180°도나 돌려야 볼 수 있겠다. 승강 구로 오를땐 비행기를 타듯이 귀가 명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1,500 feet나 되는 102층 꽈배기에 올라 왔을땐 마침 흐린 날씨였는데 구름들이 밀으로 흐른다. 멀리

바다가운데 자유의 여신이니 유엔 본부가 모두 한눈에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도 높게 쌓아 올렸나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 있기도 하다. 시원스러운 대서양을 바라보며 냉큼 차로 푹을 주기고 나니 세상이 내 것이 된 기분이다. 몇 가지 선물등 간단한 shopping 을 마치고 숙소는 bus 로 정하고 밥 bus 에 올랐다. 18시간을 달려야 Chicago 에 도착 하리라. 2日間 있었던 여행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인간은 어찌가나 정을 심어놓고 다니나 보다. 아무도 잘 가라는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팔을 흔들며 나는 조용히 환황한 탄하게 뻣찍이는 도시에 이별을 고했다.

× × ×

교환간호원으로 도미하신 채봉순 씨가 세계박람회를 구경가서 느낀점을 보내 주셨습니다,

현재 Chicago의 Sinai Hosp.에 근무중 이십니다. (편집주)

내과 간호학



강재옥 (이화의대 간호학과)

김재금 (연세의대 간호학과)

손대관 (위생간호 학교)

편
역

이 한권의 책이 내과간호의 전문 간호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값 / 일반가 700원
 \ 학생가 490원

반양장, 간지, 四六배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발행